

## '91년 전자정보산업 육성방향

정 해 주 / 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장

### 1. 전자산업의 최근동향과 당면과제

세계 전자산업은 '85년부터 '88년까지 3년간 15% 내외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나 '89년 9%, '90년 7%의 비교적 낮은 성장을 시현하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가 진전되고 뉴미디어기기, 신가전제품 등 신기술 제품의 계속 출현으로 세계전자시장은 '90년대에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세계의 전자산업은 일본, 미국, EC의 3국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 반도체, HDTV 등의 대형 기술개발과제에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증대되고 있으며 IBM, 지멘스, 모토로라, 도시바, AT & T 등 세계 유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본이 엔고이후 태국 등 동남아지역에 집중진출하고 미국과 EC 등 선진국에서도 현지생산을 확대하여 중저급품에서 최고급품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석권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전자산업은 '89년 하반기 이후 둔화된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소련, 동구권 등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투자면에서 시설투자는 '90년에 15.2%나 감소한 2조 2,246억원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나 '91년에는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구개발투자는 연평균 20% 이상 신장되어 '90

년 1조 230억원, '91년에는 1조 2,850억원에 이르러 매출액 대비 R & D 투자는 4.9%에서 5.5%로 점차 상승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임금상승은 '89년 21.9%에서 '90년 13.9%, '91년에는 9.8%로 다소 안정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동안 급격히 상승된 임금인상, 원화절상 등 원가면에서의 경쟁여건이 불리해짐에 따라 해외투자도 급격히 증가되가는 추세이며('89년 1,800만\$→'89년 4,300만\$→'90년 6,000만\$) 또한 우리기업도 국제화 추세와 세계경제질서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이 증가하여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분야에서 외국유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증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전자산업은 현재 그동안 원화절상, 임금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가운데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어 종전의 저임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산, OEM 수출이 한계에 부딪친 데다가 과거 호경기 때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을 소홀히하여 고부가가치의 기술집약제품 생산구조로의 전환이 지연됨으로서 중저가품은 동남아산 일본제품에 뒤지고 고급품은 일본산 제품에 열세를 보여 위기국면이라고 할 정도로 한계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약화된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당면 최대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전자정보산업 육성방향

상공부는 이러한 한계에 처한 전자정보산업이 성장잠재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자동화, 정보화 확산과 노사화합으로 생산성향상에 주력하고 구조적으로는 기술개발촉진을 통한 기술집약제품 위주의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아가며, 정보산업 육성을 통하여 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고도정보화 사회의 기틀을 다져나아가며, 개방과 협력시대에 적극 부응하고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를 극복토록 국제화와 국제협력을 증진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세부시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가. '91년 전자전기 수출계획 196억\$ 달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아감.**

환율, 임금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고, 북방지역 진출, 과거 1~2년간 추진한 기술개발 및 생산성향상 노력 등의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91년 수출계획 196억\$ 달성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전자산업의 경쟁력 배양**

HDTV, 16/64M 반도체, 첨단 중형컴퓨터, 차세대 팩시밀리 등 4대 첨단대형 기술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HDTV는 체신부, 과기처, 공보처 등과 범 부처적 지원을 강화하며 16M DRAM 반도체는 3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64M 반도체 개발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전자부품, 소재의 국산화 촉진을 위해 화합물 반도체, 대형 브라운관, PC핵심부품 등 기술, 자본집약적 부품개발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중소형 애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개발된 부품의 사용촉진을 위해 협의회 운영, 품질 및 신뢰성 보증제 실시 등을 통하여 부품자급률을 '90년 67.4%에서 '91년 68.5%로 제고하며, '93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0%로 제고시켜 나아갈

계획이다.

아울러 ASIC 전용실계센터와 생산시설(fab)을 전자정보 생산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ASIC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아갈 것이며 반도체 장비와 재료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반도체 제조업과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핵심장비생산 전문제조회사 설립, 반도체장비 부품 관세경감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기술개발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생기원내의 전자정보 생산기술센터 건립을 조기에 추진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은 물론 민·관 공동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기업의 기술개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선행연구기능을 강화해 나아가며 또한, 대학부설 전문연구소도 활성화시켜 나아가고 지방대학별 특화분야에 대한 산학협동연구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첨단전자기술 인력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우수공과대학 및 대학원 정원확대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다. 자동화·정보화 확산과 노사화합으로 생산성향상 촉진**

전자정보산업의 공정자동화율을 '90년 38.2%에서 '91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컴퓨터 보급률도 40%에서 45%이상 제고토록 자동화,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공업진흥회내 자동화, 정보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자동화사업 지원, 개별기업에의 지원제도 홍보, 시범업체발굴, 홍보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자동화기기 생산업체와 수요업체, 자동화 지도기관 등을 연계시켜 동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아갈 것이다.

또한 노사화합과 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교육, 연수, 친선등반대회 등 노사화합 분위기

## \*신년특집 / 辛未年 各界의 設計를 들어본다\*

확산은 물론 우수기업을 발굴 홍보를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 라. 정보산업 육성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공업소유권 등 기술정보의 DB망을 구축하여 지방기업에 정보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정보원을 '91. 1에 설립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아가고, 중소기업 정보화사업도 중소기업이 컴퓨터 구입, S/W 개발 등에 200 억원을 계속 지원해 나아갈 것이며, 포항공대에 정보산업대학원 설립, '90. 10에 설립된 컴퓨터 기술원에 여대생 미취업자 훈련과정 신설 등을 통해 S/W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아가며 S/W 단지 조성, S/W 하우스 육성 등을 통해 두뇌집약산업을 중점육성해 나아갈 것이다.

### 마. 국제화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수출기반 구축

일본의 국제화 성공전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해외진출전략을 재점검하여 국제화를 추진하고 특히 해외 현지연구소 진출과 관련하여 규제되고 있는 송금관계, 부동산 취득관계의 완화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아가고 소련, 중국 등 북방지역과 산업, 기술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미국 등 선진국으로 부터의 특허 클레임 증대에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해 나아가며 미국 EIA 등 외국의 전자산업 관련단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 바. 내수기반확대로 수출경쟁력 보완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현재 생필품화된 가전제품의 특소세를 전면 재조정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지원은 물론 국내시장에서 밀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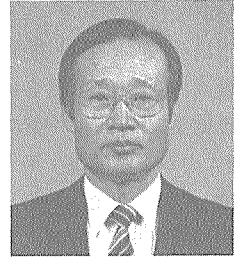
불법의제품과 가격경쟁에서 공정한 경쟁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보기반 위에 신제품개발의 촉진과 수출경쟁력의 향상을 유도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개인용 컴퓨터 보급 확대를 위해 행정전산망 PC, 교육용 PC 등은 저가(임대)로 보급하고 KTA 등 공공기관의 구매제도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하여 기술, 품질, 성능을 고려한 종합낙찰제로 전환하므로서 과당,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기술개발과 품질경쟁을 촉진시켜 수출증대에 기여토록 해 나아가고 문자다중, CATV 방송 등의 실시로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전과사용 규제를 완화하므로서 취약한 무선통신기기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아갈 계획이다.

### 사. 전자정보산업지원 행정체제 개편

정보산업은 미래의 성장주도 산업일 뿐 아니라 현재도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정보산업의 주무부처인 상공부의 기능을 보강하여 현행 전자전기공업국을 전자정보산업국으로 개편하고, 정보기기과를 정보산업과로 개칭하고 정보처리진흥과를 신설할 것이며 전자공업진흥회, S/W 산업협회, DB 산업협회 등의 정보산업 관련단체의 기능도 활성화시켜 나아가고 아울러 정부부처간에 정보산업 관련기능을 명확히하여 경제기획원은 정보화사회 정책의 통합조정, 지원을 상공부는 정보산업육성 및 산업정보화 사업을, 체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과기처는 기초과학 및 정보기술 개발업무를 전담토록 함으로서 정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혀 나아갈 계획이다.

##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투자과 노력 배가



이용태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회장

庚午年의 한 해를 어느새 뒤로 하고 1991年 辛未年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國內外的으로 어려웠던 經營環境을 슬기롭게 克服하면서 우리나라 情報産業 發展과 情報化 促進에 心血을 기울여 온 會員과 情報産業界人士 여러분께 삼가 敬意를 표하면서 새해 人事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1年前 우리는 21世紀에의 對比를 위한 情報化 實現을 위하여 '90年代가 갖는 意味에 合意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民間 業界는 國內 市場에서 教育用을 비롯한 컴퓨터시스템 普及을 크게 擴大하였고 半導體, 4M DRAM 量産 體制를 構築한 가운데 16M DRAM의 開發에 凱歌를 올리게 되었으며 홈 뱅킹서비스, 음성情報서비스 등 새로운 情報通信서비스 擴充에도 盡力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는 政府 및 經濟·社會 등 각 部門에서 情報化 認識이 크게 提高되는 轉機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政府가 「情報化綜合對策」과 「自動化·情報化를 통한 産業構造 高度化 促進對策」등을 마련하여 問題의 本領에 接近하기 始作한 것은 무

엇보다 다행한 進展이 아닌가 합니다.

한편 經濟·社會 각 分野에서도 POS(販賣時點 管理) 시스템 導入, EDI(電子去來서비스) 普及 擴散, CIM(컴퓨터 統合生産體制) 構築 등으로 實質的인 情報化 推進基盤이 幅 넓게 造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밖으로는 蘇聯·東歐 等地로의 市場進出은 물론 亞細亞·大平洲 地域國家와의 協力事業을 活潑히 展開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지난해 우리 情報産業界는 總量的 成長勢에도 불구하고 未解決의 많은 課題들이 重疊되어 構造的 難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人件費·原資材 등 原價要因의 上昇으로 企業의 競爭力을 더 이상 지키기 어렵게 되었고 內·外 市場에서의 過熱競爭으로 採算性 惡化는 물론 經營維持에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先進國의 尖端技術 移轉 기피와 技術保護主義 장벽에 우리의 허약한 技術力의 限界를 切感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專門 高級 人力의 不足으로 눈앞의 市場을

놓쳐야 하는 쓰라린 體驗은 擴大 經營을 制約하는 새로운 伏兵이 있다 하겠습니다.

더우기 지금 우려되고 있는 바대로 새해 UR태풍과 高油價 餘波로 全般的인 景氣下落과 不況 心理가 擴散될 경우 그 試鍊의 振幅은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情報産業人 여러분!

그러나 情報産業은 멀리는 21世紀 高度 情報化 實現의 主導産業이라는 점에서, 가까이는 급격히 低下되고 있는 韓國 經濟의 競爭力을 提高시킬 수 있는 絶對·有效한 手段을 提供해 주는 主役産業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試鍊期를 跳躍의 局面으로 과감히 轉換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業界는 첫째, 産業發展의 原動力인 技術, 특히 共通核心技術 開發을 위해 積極的인 投資와 協同的 努力을 倍加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를 좁히기 위해서는 뒤떨어진 年數보다 몇배의 期間이 所要됨을 명심하고 技術自立度 提高에 寸刻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業界의 懸案이 되고 있

## \*신년특집 / 辛未年 各界의 設計를 들어본다\*

는 人力不足 問題에 보다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本會 調查結果, '90年代 中盤까지 情報處理人力의 需要가 年平均 22%씩 增加될 것으로 豫測되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技術人力이 크게 不足하다는 것이 오늘의 現實입니다. 따라서 業體間 不當한 人力스카웃을 적극 自制하고 企業 스스로 教育·訓練機會를 擴充하는 동시에 政府에 대하여는 情報産業 專門人力 養成 機構가 設置·運營되도록 促求함으로써 基礎 및 高級人力의 需給이 원활해지도록 특별히 힘써야 하겠습니까.

세제, 우리 情報産業界는 市場 重視 製品開發과 함께 國內外 市場에서의 마케팅 能力 提高에도

깊은 關心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그간 우리는 마케팅 分野를 相對적으로 等閑視하여 왔고 流通過程에서 商品의 제값받기에 充分한 結實을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海外市場에서의 有效한 마케팅力 強化를 위해 國際協力 事業을 積極·多角的으로 展開, 비즈니스 機會를 積極 포착하도록 하고 內需市場에서는 過熱競爭을 相互 억제함으로써 適正한 價格體系와 合理的인 流通秩序를 確立하는 自助的 努力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끝으로 '91年度에는 우리의 宿願인 政府購買制度의 改善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미약한 對外 競爭力과 狹小한 國內市場

을 감안, 需要振作과 正常的인 市場 秩序維持를 先導한다는 大局의 見地에서 政府 및 政府投資 機關이 무조건 一般 競爭入札 方式에 의한 最低價 購入이라는 硬直된 圖式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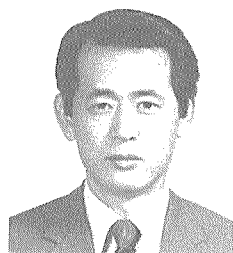
情報産業人 여러분!

벌써 '90年代의 한 해를 보내고 나니 21世紀 문턱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한世紀의 건널목인 '90年代를 情報産業의 跳躍·定着期가 되도록 함께 知慧와 힘을 모아 精進합시다.

아무쪼록 새해 情報産業인 여러분의 健鬪와 發展을 期待하면서 企業人·從業員 여러분에게 祝福과 보람이 充滿하시길 祈願합니다.

내가번돈 내가써도 지나치면 흠이된다

## 國內外 環境 변화와 中小企業 對應



허상영 / 중기협중앙회 부회장

多事多難했던 庚午年의 한해를 마무리하고 벽찬 기대와 발전을 기약하는 辛未年의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경제는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해에 9%의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6,000달러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가 국내 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先導했다는 지적속에 더욱 內實있는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올해도 對內外 경제환경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으로는 임금인상요구와 人力難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밖으로는 국내시장의 개방확대에따라 산업구조가 불가피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油價상승과 EC통합의 진전, 세계경제의 다극화와 지역통합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로 치닫게 될 전망입니다.

대내외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근로자가 뜻을 같이하여 제2의 창업을 하는 각오로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에 더욱 매진하고 새로운 기업 경영방식과 技術力을 倍加하여

새상품, 고부가가치 제품 등의 개발도 新市場을 개척하면서 경쟁력을 높여나아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本會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라는 기본적인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힘을 技術力倍加와 人력수급의 지원에 집중코자 합니다.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은 경쟁력강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기술개발 및 연구에 대한 투자욕을 고취시키고 기술 및 기능인력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기술지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成長發展의 근간이 되는 각종 정책개발과 조사기능의 강화, 국제무역환경 등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產業平和와 安定稼動지원을 위하여,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난해 1천억원을 돌파한 共濟基餘의 운영활성화로 가입자에 대

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가동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실시되는 地方自治制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立地 실태조사를 통한 立地造成을 확대토록하여 소기업육성과 創業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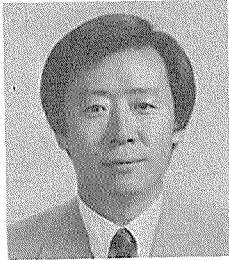
이밖에 協同組合의 조직확대와 조합운영의 활성화로 '90년대 이후의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올해 本會의 力點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앞에 가로놓인 무수한 도전과 고난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內在的 갈등과 不和가 만연됨으로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소비풍조를 추방하고 참신한 근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가 새秩序, 새生活 실천운동에 솔선수범해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중소기업인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승택 / 한국통신학회 회장

## 북방국가와의 학술교류 추진

지난 한 해는 무척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수출입국의 깃발을 든 지도 30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전자공업은 수출입국의 큰 뜻을 실천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년 동안은 외국으로부터의 견제와 질시를 면할 수가 없었으며 급기야 작년, 제작년에는 실질 성장의 감소를 맞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음에도 우리들은 나라안의 문제에 매달려 바깥 일에 눈을 돌리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통상개방압력, UR을 통한 새로운 통상질서의 도래, 지적 소유권으로 인해 해마다 가중되는 대외부담, 국가간 오염방지 협정 등, 수많은 문제들이 마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한 준비를 부족하게 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회의 정보화는 단순히 정보기기의 사용과 생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서 기인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전자산업이 당면하는 큰

본적인 문제는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면한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며 우리가 쌓아야 할 원천적인 지식과 능력 향상을 등한히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곧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야만 합니다.

통신학회는 이러한 위기에 처해서 학회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낼 생각입니다. 우선 우리의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북방국가와의 능동적인 국제학술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비공식적으로 접촉되어오던 중국과의 학술접촉을 공식화하고 소련학회와의 접촉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행사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기술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물론 산학관개의 강화는 국제행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학회 회원들의 지식이 산업현장의 기술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학회가 다리역할을 하는데도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통신학회의 회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 상호간에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여 이들의 지식을 융화하고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낳게 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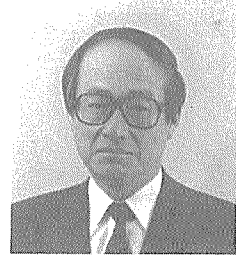
사회, 인문 계통 학회와의 학제적인 행사를 정례화하여 통신의 사회적 기능을 재확인하고 학제적인 차원에서의 정보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통신학회는 그 정관 기능상 여타의 학회와는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통신학회가 다른 학회에 비해 현실참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회가 그동안 좀 소홀히 해왔던 통신사업자와의 관계, 통신제도와 의 관계 등을 다시 부활시켜 이 분야에 종사하는 회원들의 활발한 학회활동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금년에는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신학회가 회원으로 모시고 있는 수많은 석학들의 힘이 모아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산업계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금년에는 학회의 능력을 회사의 능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보통신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총력



한태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경오년의 한해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미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80년대가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태동기였다면 '90년대는 본격적인 성장기로서 2000년대 고도정보화사회의 도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80년대에 우리는 컴퓨터의 보급과 기반통신시설의 확충과 국가기간 전산망의 구축을 위해 산·학·관이 총력을 경주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도체와 전 전자교환기 부문에서 세계유수의 생산수출국이 되었고, 전국의 전화회선이 1,500만을 돌파하는가 하면 88년 서울올림픽때는 정보통신기술과 운용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세계를 깜짝놀라게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성장이 우리 전자산업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보화사회가 미래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됨은 물론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핵심요체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2000년대 선진국 대열에 순조롭게 진입할 수 있겠

으나 하는 문제도 결국에는 정보산업 발전 여부가 그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전산화 촉진을 위해 민·관이 합심노력을 해왔지만 이룩해 놓은 것에 비해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난관들이 산적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통신시장개방문제, 통신사업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경쟁체제로의 전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장단기 인력수급대책의 강구, ISDN의 조기구현 등 어느 한가지 시급하고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작금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의 사업목표와 활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제도환경의 개선입니다.

현행 규제위주의 전기통신관계법규를 시대적 환경에 맞게 조장법 체제로 전환토록 하여 민간사업 영역의 확대와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 DB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인규베이션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DB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세제, 요금, 회선사용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협회산하 EDI연구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EDI환경연구 및 표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으로서 EDI표준화는 물론 이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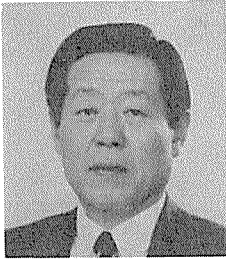
넷째,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UR협상 및 한·미 통신협상에 대한 민간차원의 활동 강화노력입니다.

다섯째, 정보통신산업분야의 기초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민간기업의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 등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산·학·연·관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민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은 협회활동의 성과를 좌우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고도 정보화사회 구현이라는 원대한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도 민간업계의 중지를 모아 정보통신부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에 각계의 각별한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1991년이 전자공업인 모두의 건강하고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전기·전자분야 '90년대 선도산업으로 키워야

이희중 / 한국전기공업협회 회장

보람과 땀으로 어울어진 경오년  
도 하나의 역사로 기록된 채 막을  
내리고 대망의 신미년 새아침이 밝  
았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한 해는 다  
른 어느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많  
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던 한 해  
였습니다.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끊임  
없이 가해오는 시장 개방압력과  
UR협상문제, 선진국의 신보호주  
의의 대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첨단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업계  
자구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던 격  
동의 한 해였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한편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과 업계의 성원에 힘입어 전기공  
업이 명실상부하게 국가 기간산업  
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데 함께  
노력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  
니다.

특히, 2,000여 전기업체 및 10만  
여 전기공업인들은 급변하는 대내  
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업계의 시대적 사  
명을 재조명하고 '90년대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에 전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기공업인들  
의 공동이익 증진과 전기공업발전  
의 토대가 될 미래지향적인 구심

체로서 지난해에 한국전기공업협  
회를 발족하게 되었음은 우리 전  
기업계로서는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협회가 설립되자마자  
그 첫사업으로 협회가 주관이  
되어 수립한 중전기 기술개발  
5개년 계획이 정부시책으로 확정  
되어 새해부터 '95년까지 1,022억  
원이 투자되도록 확정되었음은 우리  
전기업계로서는 실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전기 산업은  
중전과는 그 구조와 응용범위가  
크게 변화하여 Software, 종합엔  
지니어링까지 응용되는 첨단기술  
의 총집합체로서 전기, 전자, 기  
계적 특성까지를 공유하는 종합기  
술 산업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추  
세로서 정부 및 민간의 R & D 투  
자확대가 더욱 더 요청된다고 하  
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신년도 우리협회에서는 이미  
수립한 중전기 기술개발 5개년  
계획중 1차년도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국산개발 품목의  
확대, 신제품 개발에 대한 규격  
제정추진 등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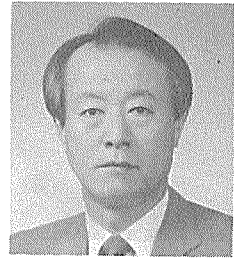
그리고 '91년도에는 정부의 산

업구조 고도화 추진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생산현장의 자동화, 정  
보화 촉진으로 중전기 국산공급  
설비능력확대, 품질수준의 제고에  
도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아  
울러 중전기 시험제도 연구개선,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추진에  
따른 대응에도 업계의 의견을 최  
대한 수렴하여 전기업계의 피해  
가 최소화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91년도에도 우리의 경기전망은  
그리 밝지않아 최대의 무역적자  
심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전  
자·전기공업은 다행히도 성장과  
발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  
안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혼연일체  
가 되어 땀흘려 가꾼 보람의 결과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전  
과 창조의 의지로 기술혁신을 통  
한 생산성 향상과 신시장개척, 품  
질의 고급화 추진 및 산업평화를  
이룩해 나간다면 우리 전기, 전자  
공업분야는 다른 어느분야 보다도  
전망이 밝은 21세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해에도 전자공업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며 전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을 기대합니다.

## 정보화 사회의 기반 확충을



송병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먼저 신미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시하여 정보산업 분야에 관계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지난 한해보다 더욱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여러 가지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나라에 정보화가 도입되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분야가 산업화된 것이 수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업계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육성지원정책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업계, 정부, 관련단체들이 각기 나름대로 노력하여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하나씩 정비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산업이 유아기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정부의 육성지원제도와 업계의 기술적인 면에서 아직은 선진외국에 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수요 및 시장여건의 발전과 함께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우리 협회도 이러한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신년도 우리 협회의 중점계획을 몇가지 열거하면, 우선 그동안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개발단지

의 건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정부부처들과 진행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이 여타 제조업과 같이 금융 및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보다 활발한 산업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확충하는 데 노력코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 우리 협회는 한국전자공업진흥회와 공동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관련정책 및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 관련 부처에 대한 정책건의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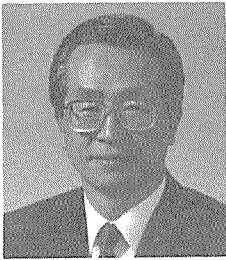
아울러 소프트웨어산업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다방면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나 업계가 각자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산업 자체의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종합적인 산업현황이 파악되어야 현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가지 산업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조사, 발표되고 있지만 산업의 연륜이나 업계 및 시장의 규모 등이 발전함에 따라서 보다 자세하고 종합적인 현황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대한 표준화 문제, 수요확대에 대한 방안 마련, 산업의 국제화 추진, 공동에로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등 여러가지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현재를 가다듬고 미래를 준비하는 두가지 측면에 모아진다고 보겠습니다. 보다 냉철하고 효과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산업과 국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및 정부 등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치된 방향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황인정 / IPECK 부회장

## 1991年度 北方民間經濟 협력의 지원 방향

1991年은 國際民間經濟協議會(IPECK)가 組織의 모습을 갖춘 지 3次年을 맞이하는 해라 할 수 있다. IPECK는 어느 團體와 달리 특이한 時代환경 속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創設된 조직이었다.

6共和國의 가장 중요한 國策事業의 하나인 北方政策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北方國家들은 우리와는 한때 準適性的의 關係에 있었고 또 國交가 없었기 때문에 政府次元에서 公式的의 '接近이 不可能했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IPECK은 北方國家들을 相對로 交渉·接近하는 데 있어서 公式的으로 表出된 유일한 手段으로 構想·發足되었다. 따라서 IPECK은 出發부터 民間모자를 써야만 했었고 또 商議, 企經聯, 貿協 등 經濟團體가 主軸이 되어 政府를 代身하여 出資·組織해야 했다. 그리하여 IPECK은 잠정적으로 必要한 範圍內에서 政府機能을 代行해야 하고 民間企業의 北方經濟交流를 위해서 窓口機能을 遂行하도록 受任을 맡게 되었다.

이러한 背景은 一般市民이나 個別企業으로서의 쉽게 理解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또 이러한 組織運用은 우리나라로서는 일찌기 경험한 바 없는 특이한 것이

었다. 따라서 IPECK은 그 初期부터 오히려 國內 既存단체나 組織으로부터 管轄영역에 관한 道전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IPECK으로서의 이를 公開的으로 變명하거나 應對하기 어려웠던 것도 事實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逆境과 어려움 속에서도 IPECK은 지난 2年間 여러가지 뜻있는 일을 수행해 왔다. 첫째 政府次元의 國交내지「公式接觸을 促進하기 위한 「로비」 역할을 수행해 왔다. 民間次元의 실질적인 經濟協力이 이루어 지려면 결국 政府間 公式關係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北方要路에 꾸준히 피력해 왔다. 둘째 國交가 없는 狀況에서 北方經濟交流를 推進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不利益을 解決하기 위한 우리 企業의 代辯者 役割을 해 온 것이다. 關稅上의 差別問題, 北方國家에 設置된 支社의 現地人 雇傭, 外換利用上에 있어서 또, 國際入札과정에서 國交가 없다는 理由 때문에 당하는 不利益 문제 등을 解決하기 위한 對北方 해결사 역할을 수시로 수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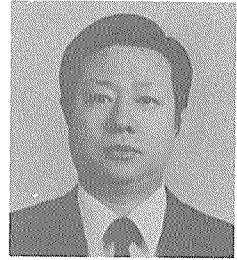
세째, 經濟團體로서 民間次元의 雙務經濟協力委員會의 組織을 위한 交渉과 事務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努力의 과정과 결과는

우리나라가 東歐諸國과 蘇聯은 물론이고 中國과도 최근 事實上 政府次元의 貿易代表部를 相互 設置하는 데 一助가 되었다. 따라서 IPECK은 스스로 이룩한 努力의 결과로서 오히려 그만큼 빨리 機能的 變化를 能動的으로 摸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大統領의 모스크바訪問 등 北方政策의 可視의 成果에 힘입어 民間次元의 實質的 經濟協力이 더욱 加速化될 것이다. 따라서 IPECK은 1991년부터는 既存의 役割을 多少 調整하면서 韓國企業의 對北方進出에 必要한 情報需要를 充足하기 위하여 調查研究 및 投資諮問 기능을 改善·擴充해 갈 것이다. 企業視角에서 必要한 具體的이고 現場感있는 情報를 機敏하게 제공해 가면서 한편 이를 持續的으로 蓄積하도록 努力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IPECK은 現地言語로 무장된 專門要員의 全力투자와 함께 現地通信員을 活用해 나갈 것이다. 韓國企業 특히 中小企業들이 中國·蘇聯 등으로 投資進出을 試圖하는 경우 段階別로 必要한 諮問을 提供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하고 接近하기 어려웠던 北方國家에서 成功의 事業活動을 支援하기 위해서 教育研修사업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이제는 自制하며 새 사회 建設에 同參할 때

윤봉수 / (주) 남성 사장  
본회 부회장



지난해는 國內外 環境이 우리 國民 모두에게 많은 試鍊과 苦惱를 안겨준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國際的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U R)협상을 계기로 國際間 開放壓力의 波高가 더욱 높아졌으며 페르시아灣 事態의 突發로 인한 油價의 폭등은 世界的인 經濟不安을 야기 시킨채 아직도 未決의 場으로 남아있다.

한편 國內事情을 보면 政局의 不安定으로 인한 國民生活의 不安과 苦痛은 해를 거듭할수록 增幅되고 있고 貿易障壁은 날로 높아만 가는데 國際競爭力은 자꾸만 弱化되어 '90年에도 前年에 이어 輸出不振으로 많은 企業이 呻吟하고 있는 實情으로 더욱 우려되는 것은 現在의 不振한 輸出이 좀체로, 回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國內外의 與件은 輸出에 점점 不利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고 企業을 보는 잘못된 視覺과 鎖定되지 않고 있는 勞使間의 葛藤은 企業家의 企業意慾을 喪失시켜 國家의 앞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社會現況은 어떠한가? 漫然되어만 가는 投機心理와 過消費風潮는 國民階層間의 相對的인 貧困感을 刺戟하여 葛藤의 繭을 깊게 하고 있다. 그리고 道德性과 論

理性의 失蹤으로 不條理와 腐敗를 擴散시켜 國民의 精神健康을 荒廢化시키고 있음은 실로 심각한 問題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이와 같은 不幸한 現實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거나 덮어둔채 外面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잘못된 것은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할 責任과 義務가 있고 우리에게는 보다 큰 試鍊과 難關도 克服할 수 있는 能力과 智慧가 있다.

우리는 '60年代부터 4 半世紀 동안에 漢江의 奇蹟을 이룩한 前歷이 있지 아니한가. 새해에는 기필코 해내고야 말겠다는 새로운 覺悟와 決議를 다져야겠다.

첫째, 어떠한 難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克服 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意志를 다져야 한다. 그리하여 自己에게 주어진 職分을 誠實히 修行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事案을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解決할 수 있다는 確信을 가져야 한다. 肯定的인 思考와 確信을 가진자는 成功하는 方法만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셋째,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自制하는 習性을 길러야 한다. 언제나 自己滿足만을 追求한다면 紛爭은 解決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째, 우리 모두는 勤儉節約에

힘써야만 한다. 이것만이 相對的인 貧困感에서 야기되는 國民間의 葛藤이 解消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國際競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思考方式에서부터 企業의 經營方式에 이르기까지 全分野에 걸쳐서 合理化와 能率化가 追求되어야 하고 國際競爭을 優先的으로 생각하는 意識의 轉換이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意識의 轉換은 우선 나와 내가족부터 시작하는 勇氣가 必要하다. 그 다음으로 이 運動이 社會 구석구석으로 擴散되었을때 第2의 漢江의 奇蹟이 이루어질 것이고 先進國際列에 進入하는 土臺가 마련될 것이다.

새해에도 輸出이 더욱 어려워지고 國際收支赤字가 擴大되리라는 어두운 展望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그러나 當面한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온갖 難關을 克服해온 智慧와 勇氣를 다시 한번 되살려서 國內外 環境變化의 물결을 우리에게 有利하게 活用하도록 努力한다면 새로운 跳躍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새해는 政界, 企業家, 勤勞者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 풍요로운 새社會建設에 同參하는 해가 되길 祈願한다.



김정식 / 대덕전자(주) 회장  
본회 부회장

## 有機的인 協力體制로 對外 競爭力 強化를

辛未年의 希望찬 새해를 맞이하여 電子工業人 여러분의 家庭 위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大德」을 아껴주신 振興會會員社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해보면 國家的으로나 모든 企業들의 社內外的인 與件들이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輸出不振의 長期化로 國際收支의 赤字폭이 점차 늘어나고 서비스業 中心의 內需市場이 活性化 되던서 製造業의 成長이 鈍化되어 國家經濟를 沈滯局面으로 빠지게 하였으며 對外的으로는 靑灣 事態로 인한 油價의 引上和 円高로 인한 原副資材價의 上昇, 그리고 UR協商 等 先進國의 市場 開放 壓力과 EC統合, 北美 Block 等の 進展으로 保護貿易이 더욱 強化되면서 우리 企業들의 對外 競爭力이 惡化되어 '90年代의 어려운 經濟 現實과 熾熱한 競爭時代를 豫告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國內外的인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國家經濟의 中樞基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電子業界는 持續的인 施設投資와 技術開發로 多變化, 高競爭 時代에 對處할 수 있는 터전을 꾸준히 다져 나아가고 있음을 볼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國際競爭力確保와 不振한 輸出을 早期에 回復시키기 爲해 業界 相互間의 役割을 分擔하여 有機的인 協力體制를 構築하는데 우리 電子工業人 모두의 知慧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辛未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電子工業人들은 지난해의 어려웠던 經營與件을 周到綿密하게 分析하고 새로운 覺悟와 姿勢로 한 해를 準備하여야 하겠습니다.

今年 한 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變化와 競爭이 豫想되고 있으며 특히 技術의 變化速度가 豫測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進行되고 있어 企業間의 相互 協力關係가 매우 節節히 必要하다고 生覺하며 우리 電子產業과 部品業界가 나아가야 할 方向에 對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品質保證과 信賴性 提高를 爲해 모든 努力을 傾注하여야 하겠습니다. 品質保證만이 對外的으로 失墜된 信賴도를 回復하

고 우리가 過去에 이룩했던 漢江의 奇蹟을 再然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持續的인 研究開發과 新製品 開發에 使命感을 갖고 臨하여야 하겠습니다. 日本의 円高와 自動化를 바탕으로한 低價功勞와 東南亞 後發開途國들의 急浮上에 對應하기 爲해서 新技術의 開發은 必然的인 것이며 우리 企業人들이 使命感을 갖고 關心과 投資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業界 相互間의 緊密한 紐帶關係가 그 어느해 보다도 더욱 強化되어야 하겠습니다. 円高·油價引上 等으로 因한 企業의 追加負擔을 業界 相互間의 協助와 激勵로 最少化시키며 共存共生의 協力體制를 構築함으로써 對外 競爭力 強化에 一益을 擔當하여야 하겠습니다.

네째, 巨視的인 國家經濟의 發展을 爲해 役割 分擔體制를 점차 確立시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大企業과 中小企業, Set Maker 와 部品業體間의 役割 分擔은 過剩 重複 投資를 防止하고 部品産業 發展의 흐름을 圓滑하게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役割 分擔 體制가 定着 되어질때 國家

經濟의 均衡的 發展을 期待할 수 있으며 産業構造基盤을 더욱 튼튼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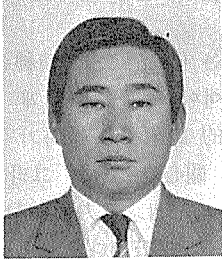
마지막, 다섯째로는 超小型化 機器의 時代에 能動的으로 對處해야 하겠습니다. 電子機器의 小型化가 急速度로 進行되고 있어 高密度 實裝, Print配線의 品質·信賴性을 確保하기 爲해 實裝 設計 技術, 部品技術, 接續技術, 製造技術 等 多方面에 걸쳐 業界 相互間의 協力關係를 緊密히 함으로써 SMD製造技術을 早期에 定着하여 Set製品의 輕薄 短小化는 물론 關聯 部品까지도 超小型化

하여 電子部品の 革命을 이룩하는데 全力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先進大國 日本의 電子SHOW를 보면 尖端 電子部品 SHOW같은 印象을 強하게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냥 看過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製造業 特히 電子工業이 國家 經濟發展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얼마나 重要한 것인지 우리 電子工業人들은 잘 알고 있지만 特히 이처럼 어려운때 일수록 우리끼리의 過多競爭으로 因한 競爭力 喪失보다는 敦篤한 協力關係를 存續시키면서 技術과 品質의 優位를 確保하는 路만이 우리의 살길

이라는 使命感으로 精神을 再武裝하여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宿命的 課題를 完遂하기 爲해 政府의 關心과 支援, 그리고 業界 스스로의 自求努力이 뒷바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 한해 동안의 우리 經濟를 바라보는 마음이 결코 밝지만은 않지만 技術開發과 品質保證의 關心 提高와 業界 相互間의 協力體制의 強化 그리고 共同運命體로서의 使命感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經濟를 活氣있고 希望찬 再跳躍의 路로 案内할 수 있으리라 確信하는 바입니다.



정장호 / 금성정보통신(주) 사장  
본회 이사

## 知價社會를 맞이하면서

辛未年 새해 아침을 맞아 전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합니다.

지난해는 “總體的 難局” 이라 부를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고 페르시아만 사태가 겹치는데다 선진국의 개방압력의 가중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새해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한편 通信市場 開放을 앞둔 通信事業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성정보통신(주)은 예상되는 難關과 變化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高度의 多樣性이 요구되는 21세기에 성공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올해 먼저 시대에 맞는 企業文化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미래사회는 노동력이나 기계보다 지식이 가치를 창출하는 知價社會(Knowledge Era)가 될 것이므로 “情報通信을 통하여 知價社會를 先導하는 회사”로 우리의 將來像을 정하였고, 보다 고차원의 삶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價値創造”를 전 임직원의 共同目標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價値觀과 目標에 맞추어 우리의 전통적인 視角과 思考를 전환하고,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전 임직원이 용솟음치는 힘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個人과 會社의 발전은 물론 國家 사회발전에 貢獻코자 합니다.

미래 知價社會는 고도로 可變的이고, 多樣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情報通信(Information & Communication)의 발전을 통하여 可變性과 多樣性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集中과 分散機能을 擴散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질 것이므로 종래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하여 상품의 附加價値인 奉仕價値(Service-ware), 人品價値(Human-ware), 知性價値(Knowledge-ware)를 創出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이며, 첨단 高附加價値 製品開發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자부품 수출은 가정용 消費材 製品이 주종을 이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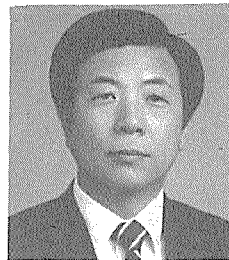
고 通信裝備를 비롯한 尖端機器 분야는 국내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전부터 通信業體들이 海外市場 개척에 나섰지만 技術, 마케팅, 借款供與條件 등에서 선진외국보다 열세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의 強點을 잘 활용하여 선진외국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거나, 또는 경쟁을 피할 수 있는 戰略據點을 확보하고 거기에다 生産基地를 구축함으로써 다국적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우리 회사의 世界化를 도모코자 합니다.

知識集約形 社會로의 移行, 國境없는 世界經濟, 技術의 加速的 發展 등은 사람들의 生活文化, 企業文化 모두에 變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이런 변혁에 적응하고, 계속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先導的 역할을 해 나아갈 것이며, 이에 대해 전자산업인 모두의 깊은 關心과 支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새해, 기술력 증진으로

양유석 / 두산전자(주) 사장  
본회 이사



'90년대를 여는 1990년 한 해도 예외없는 시간의 궤도 속에 어느덧 저물었고, 새로운 꿈을 머금은 1991년이 들어섰다.

'80년대 중반부터 누렸던 전자산업 호황의 기세가 누그러진 이래 제도약을 위해 힘쓴은 '90년이었지만 주변여건의 침체와 자체 기술력의 미흡으로 인해 큰 성과를 맞보지 못한 한 해였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작은 부분을 담당해 오면서 같이 땀흘리고, 같이 웃어온 당사도 이제는 외부여건의 충격파를 자체노력으로 헤쳐 나아가고, 새로운 방향과 미래에의 도전에 과감히 나설 때라고 판단된다. 자동화시설의 확산, 통신·정보망의 급속한 발전 등은 그 무엇보다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 새로운 것에서 또 새로운 것으로 거듭난 발전을 지속하고 있지 않은가? 국내 동박적층판(C.C.L)산업을 이끌어 온 당사는 '91년도 새해를 맞아 전자산업 전체의

나아갈 방향과 뜻을 같이 하여 기술력의 증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기술은 곧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다. 미래를 향하는 추진력을 갖고 있으며, 기적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 텔레비전의 발전을 통하여 살펴 보더라도 흑백TV에서 칼라TV로, 칼라TV에서 HDTV로 급속하게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기술이 선형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의 변화가 입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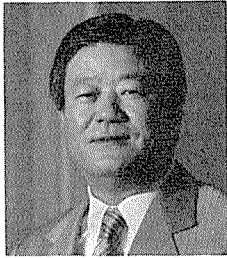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3차원적 입체구조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기술의 발전이야말로 성공적인 기술의 발전이다. 흑백TV시대에는 흑백TV에 맞는 부품과 소재, 칼라TV시대에는 그에 요구되는 특성의 부품과 소재, 그리고 HDTV시대 역시 그에 맞는 첨단부품과 소재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완제품은 완제품대

로, 부품 및 소재는 또한 제각기 기술발전의 보조를 맞추어야 구조적 결함이 없는 입체적 기술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당사도 첨단화에 맞는 동박적층판의 제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며 기술적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새해에도 기업을 둘러싼 외부여건은 그리 원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회와 위협을 적기에 관리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를 기술력에 두고 정진할 때 그동안 애써 노력하고 가꾸어온 분야에서 저마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 이겠지만 특히 첨단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산업에 있어서 소재의 기술, 부품의 기술 그리고 완제품의 기술이 서로 조화롭게 융화되어 그 열매를 같이 나눌 수 있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박계동 / 동형전선(주) 사장  
본회 이사

## 새해, 우리의 座標

大望의 辛未年 새해를 맞이하여 電子工業人(家族)여러분의 家庭에 幸運과 萬福이 充滿하시길 祈願합니다.

특히 昨年 한해 동안 어려운 經濟與件속에서도 不屈의 精神으로 各 分野에서 國家經濟 復興이라는 使命感을 가지고 電子産業의 發展을 爲하여 不撤晝夜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電子工業人 여러분과 全幅의 支援과 關心을 가져주신 關係機關 여러분께 深甚한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多事多難했던 한 해로써, 政治的으로는 內閣制改憲 是非와 地方自治制 實施 等の 問題로 政局이 不安하였고 外交的으로는 對蘇修交 및 大統領의 蘇聯訪問 等 成果도 있었으나, 社會的으로는 犯罪와 戰爭을 宣布할 程度로 民生治安의 不在를 보였는가 하면 一部 富裕層의 過消費 風潮가 中産層으로 까지 蔓延되어 階層間의 不信이 澎湃하여 점점 深化되고 있으며, 經濟的으로는 物價의 暴騰, 賃金의 上昇, 輸出不振으로 인한 貿易赤字의 累增 等 슴막히는 各種 어려운 與件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希望의 要素가 없었

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特히 企業의 經營環境은 原資材難, 賃金上昇, 勞動力의 空洞化 現狀으로 인한 製造業分野의 人力難, 貿易摩擦, 技術開發의 不振 等으로 價格競爭力과 品質競爭力을 喪失하여 企業活動이 相對的으로 萎縮되었습니다. 이렇게 劣惡한 與件下에서도 지난 1年間 電子産業界에서는 有關機關의 積極的인 協助로 各種 海外 展示會 및 세미나 參席, 調查團 派遣 및 協力 使節團 派遣, 海外研修 等を 實施하였고, 國內에서는 各 團體別로 展示會 開催, 情報의 蒐集交換, 對 政府 建議 等 企業에 對한 活力素를 불어 넣어주며 多角度로 活性化 對策을 講究하였고, 企業들은 感量經營을 하면서 活路를 摸索하였으나 根本的인 經濟與件이 好轉되지 않아 努力에 比하여 成果는 未洽하였던 것이 事實입니다.

이러한 諸般 狀況들을 綜合하여 볼때, 우리나라의 經濟는 今年에도 根本的인 與件이 好轉되지 않는한 回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展望하는 見解가 支配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難局을 他山之石으로 보고만 있을수는

없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가 克服하고 解決해야 할 宿題요 至上 課題입니다. 五千年 歷史以來, 우리나라는 周邊의 列強들로부터 恒常 外侵을 받아 왔으며 그 때마다 國民들은 갖은 苦難과 逆境속에서도 슬기와 智慧로 難局을 依然하게 打開하여 나라를 守護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各界 各層이 團結하여 企業은 물론 政府와 온 國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어려운 經濟難局을 슬기롭게 克服해야 할 것입니다.

企業은 技術開發에 對한 果敢한 投資와 徹底한 品質管理로 新製品을 開發하여 國際競爭力을 높이고 市場을 多邊化하여야 하며, 勞使間에 信賴를 構築하여 生産性 向上, 品質向上은 물론 環境變化에 따른 對應能力을 提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勤勞者는 國內外的 政治, 社會, 經濟의 環境變化를 直視하여 올바른 職業觀과 價値觀을 確立하여야 하겠습니다. 政府는 長期的이고 一貫性있는 政策을 樹立하여 于先 政治, 社會的으로 安定을 圖謀하고, 經濟難局을 打開해 나갈 수 있는 根本的인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입니다. 特히 企業의 技

**\* 辛未年 各界의 設計를 들어본다 / 新年특집 \***

術開發과 經營改善에 對한 果敢한 支援을 하여 企業의 對外 競爭力과 自生力을 갖출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國民은 이러한 政府施策에 對한 信賴를 바탕으로 企業의 經濟難局 打開에 對한 意志를 聲援하여 주시고 積極

好應하여 주신다면, 經濟難局 打開에 對한 우리의 座標는 分明하여질 것이며, 難局은 克服될 수 있을 것입니다.

電子工業人 여러분!

辛未年을 맞아, 새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難局을 슬기롭게 克

服하여 健全한 電子産業 育成에 最善을 다합시다.

끝으로 올해도 뜻있고 보람찬 한해가 되시길 祈願합니다.

辛未元旦

**한사람 십원낭비 4천만 4억낭비**